

짐볼, 방울, 짚풀이 만들어낸 '아트 정글'

September 4, 2019 | 전지현 기자

짐볼·방울·짚풀이 만들어낸 '아트 정글'

4년만에 개인전 여는 설치미술가 양혜규

장기편 선을 그은 바닥에 안개가 자욱하고, 행성처럼 생긴 짐볼들이 향기를 뿜으면서 굴러다녔다. 검은 벽면에는 마늘과 양파, 고추, 무지개와 번개, 의료 수술 로보, 짚풀, 방울 등이 은하계를 떠도는 별들처럼 무중력 상태로 배열돼 있었다. 어디선가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나고, 움직이는 조명(무빙 라이트)이 전시장 곳곳을 비추고 있었다. SF 영화 배경처럼 현란하고 어지러우며 복잡한 이곳은 바로 설치미술가 양혜규 독일 슈테델슐레 교수(47)의 '아트 정글'이다.

작가는 그만의 특별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디언처럼 얼굴 절반을 붉게 칠하고 서 있었다. 지난 2일 서울 국제갤러리 개인전 '서기 2000년이 오면'에서 만난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제 정신이 아니라서 트랜스포메이션(변신)을 했다. 무당이나 배우처럼 펼쳐입고 나와 용기를 내서 축제를 같이 즐기고 남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면서 페이스 페인팅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난해하고 독특한 작품으로 세계 유명 미술관을 점령한 여전사는 의외로 내성적이었다.

"재작년인가 우연히 멕시코 '망자의 날'(매년 10월 31일~11월 2일 죽은 자들을 기리는 축제)에 도착했는데 전 도시 사람들이 얼굴 칠을 하고 있었다. 친구를 즐겁게 해주려고 해골처럼 얼굴을 칠하고 돌아다녔는데 그날 하루 너무 편했다. 카니발에서는 모두 막가는데 해소 구멍이 있더라."

전시 제목 '서기 2000년이 오면'은 시간의 혼

1985년 가수 민혜경 노래 '서기 2000년이 오면'서 영감 유년시절 그림 '보물선' 걸고 새로운 시공간 열고 싶었다 왜 이런 작품 하나냐?... 살고 싶어서

재를 보여준다. 1985년 가수 민혜경이 발표한 동명 유행가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지금은 이미 2000년이 지난 지 19년이다. 갤러리 주차장에서 전시장으로 가는 길에 흘러나오는 이 노래 가사 '서기 2000년이 오면 우주로 향하는 시대, 우리는 로켓트 타고 멀리 저 별 사이로 날으리, 그때는 전쟁도 없고 끝없이 즐거운 세상, 그대가 부르는 노래 소리를 세상을 수놓으리, 사바 사바 사바 그날이 오면은...'을 들으면 헛웃음이 피식 나온다. 2000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다.

"1985년 노래에서는 2000년이 황당한 가사로 부를 만큼 먼 미래였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2000년은 과거다. 이처럼 시간은 한없이 분절되고 기억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후렴구를 '사바 사바'로 엄버무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지하고 막연했다는 게 이번 기획에 도움이 됐다. 내 시간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1970~1990년대 초반에는 한국에서 보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독일로 가서 다른 시공간을 살



은색 짐볼과 흰색 블라인드 등 다양한 작품들을 펼친 개인전 '서기 2000년이 오면'에서 만난 설치미술가 양혜규.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포즈를 취했다. <한주형 기자>

았다."

전시장 입구에는 1977년 쌍둥이 동생인 양동규·양술규 씨와 함께 그린 '보물섬'을 걸어작가의 과거를 끌어들었다. 그는 "시조세가 낡고 도깨비가 등장하는, 알 수 없는 시공간을 그렸는데 그림이나 노래가 주는 정보가 있다. 이 그림으로 보이지 않는 시공간을 여는 데 화두를 던졌다"고 했다.

세소리는 지난해 4월 남북 정상인 만난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방송에서 녹취했다. 그날 독일에 서 20시간 넘게 정상회담 중계방송을 지켜보던 작가는 갑자기 세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흐른 도보다리 비공개 회담 장면이 빨려들었다.

"다른 시공간에 사는 수많은 사람이 그 장면을 봤다는 데 압도당했다. 나중에 찾아보니 단 칙륙 이후 실시간으로 가장 많이 시청한 중계 방송이라고 하더라. 앵커가 설세없이 해설을 하다가 도보다리 회담에서 정적이 흐르는 게 시간의 불연속 같았다. 마치 천국과 지옥 사이 연속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연관 없는 이미지들이 혼재된 벽지 작업 '배양과 소진'은 서로 다른 시공간 조합이자 순환이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 기술과 문화, 자연과 문명을 조합하고 병치하는 양혜규 작품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는 "부순 의미미인기. 왜 이런 작품을 하나고 몰으면 딱히 할말은 없지만 살고 있어서 작업한다"고 했다.

이번 전시는 2015년 삼성미술관 리움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네 번째 개인전으로 오는 11월 17일까지 열린다. 문의 (02) 735-8449 전지현 기자